

# 전주형 행복지표 개발 시민행복 시대로

## 시, 일자리 환경이 주는 행복 등 23개 지표 개발

전주시가 가장 인간적인 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주시민들의 행복을 찾기 위한 전주형 행복지표를 전북지역 최초로 개발했다.

전주시는 1일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한 '전주형 행복지표 개발·조사 연구용역'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전주형 행복지표는 전주시민들에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대되고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시는 이를 토대로 전주시민들의 행복도를 측정해 사람중심의 정책을 개발하

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용역 수행기관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미옥)은 이날 보고회에서 지난 6개월 여 동안 행복 및 행복지표 관련 문헌 연구와 전주시민 7집단 그룹 인터뷰, 전문가 자문, 연구진 세미나 등의 과정을 거쳐 도출한 전주형 행복지표를 발표했다.

전주형 행복지표는 사람과 도시, 품격의 3개 대범주와 12개 영역과 92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먼저, 사람 범주에는 △소득과 소비 만족이 주는 행복 △일자리 환경이 주는 행복 △관계만족이 주는 행복 △공공체 신뢰가 주는 행복 등 4개 행복도 영역, 23개 지표가 개발됐다.

또한 도시 범주에는 △양육 및 교육 만족이 주는 행복 △지역서비스(복지, 보건, 문화, 행정) 만족이 주는 행복 △지역안전 및 자연환경이 주는 행복 △교통 및 이동권 만족이 주는 행복 △지역경제 만족이 주는 행복 33개 지표가, 품격 범주에는 △지역문화와 정신적 유산이 주는 행복 △전주시민으로서 정체성과 소속감이 주는 행복 △미래 삶 전망에서 오는 행복 등 3개 영역, 36개 지표가 각각 포함됐다.

용역 연구진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1달 동안 전주시민 566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 전주시민들이 느끼는 행복도도 함께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주시민의 행복지수는 평균 5.79로 중간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람'은 5.98, '도시'는 5.16, '품격'은 6.4로 각각 나타났다.

분야별 행복도에서는 사람 범주의 '나는 현재 행복하다(6.77)'가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높은 수준을 선택했으며, 도시 범주에서는 '전주의 날씨는 살기에 적당하다'가 6.1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가장 높은 행복도를 보인 품격 범주에서는 '지역문화와 정신적 유산이 주는 행복'(6.47점)과 '전주시민으로서 정체성과 소속감이 주는 행복'(5.91점) 등 모든 영역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행복도 측정결과를 시정에 접목하여 시민행복 견인 가능한 정책개발 및 현재 추진사업의 점검기회로 활용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구직 힘들어 트럭에 불지른 40대 구속

전북 고창경찰서는 1일 구직이 힘들다는 이유로 트럭에 불을 지른 전모씨(43,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1월 24일 오전 12시 30분께 고창군 고창읍 소재의 한 마트에 주차돼 있던 It 포트트럭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술에 취한상태로 자신의 라이트를 이용해 트럭 적재함에 있던 폐지에 불을 붙인 직후 도주했다.

전씨가 발생시킨 화재는 트럭을 전소시킨 후 마트 건물로까지 옮겨붙어 약 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경찰조사에서 전씨는 "겨울철이라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찾김에 불을 질렀다"고 범행동기를 진술했다. /김민근 기자



## 전주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확대

### 올해부터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두 배로 확대 실시

전주시가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확대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는 그간 저소득층 가정에서 기존 생후 12개월까지 지원되던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기간을 올해부터는 생후 24개월까지 두 배로 확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했던 조제분유 지원 사업도 올해부터는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및 부자·조손가정 양육 영아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의 2세 미만 영아로, 보건소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4000원과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8만6000원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물품은 우체국 소포물과 이마트 등 카드사별 구매가 가능한 구매처에서 구입하면 된다.

이번 지원기간 확대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생후 24개월까지 자동 연장되며, 서비스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2015년 출생아)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063-281-6280, 628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5년 10월부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2015년 123명, 지난해 451명의 영아에게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했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가 저소득층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대상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전북경찰청, 국제행사안전팀 현판식 개최... 준비사항 점검

전북경찰청(청장 조희현)이 올해 5월과 6월 전북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제행사안전팀 현판식을 1일 개최했다.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과 2017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제대회 경비안전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행사안전팀의 현판식에는 조희현 전북경찰청장장과 1부장을 비롯한 각 기능별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현판식은 국제행사안전팀 현판 부착과 경비·안전 활동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팀원들을 격려했으며,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완벽한 대테러 경비·안전활동을 위한 기능별 추진과제 및 현장지원 계획 토의 등 전반적인 준비사항을 점검하였다.

조희현 청장은 이 자리에서 "국제행사 성공개최의 최대 관건은 빈틈없는 안전 확보"이며 "안전하고 질서있는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행사안전팀을 중심으로 만반의 준비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 발 빠른 행정으로 '뉴-덕진시대' 준비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박선이)는 민선6기 들어서 전주시가 아중천과 아중호수를 중심으로 한 호반도시 건설, 전주역사 신축 및 첫 마중길 조성, 생태동물원과 덕진생태공원-대학로를 잇는 덕진 에코파크 조성, 민성동 법조타운과 에코시티 건설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뉴-덕진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17년 구정방향을 △한발 빠른 현장행정 △소통하는 감동행정 △출중한 복지행정 △사람중심 생태환경으로 정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장 인간적인 전주' 만들기를 결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발 빠른 현장행정으로 시민 불편 제로화를 위해 덕진구는 당직민원, 기동순찰, 시민불편, 현장행정의 날을 운영하고, 시민불편사항 처리결과 통보 시스템을 도입해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 예정사항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시민이 만족하는 감동행정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지속단속, 사업용 불법주차차량 밤샘단속, 주요도로 CCTV 설치, 시내버스 탑재형단속시스템 운영 등 불법주정차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상시 도로순찰을 통한 포트홀을 보수, 노후도로 재포장, 인도 보행 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갖추고 진북동 어은골 절개지 위험지구 등 재해위험지구와 의심지역은 책임담당자를 지정, 수시로 점검해 사고를 미연에 완벽히 대비할 계획이다.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위해 "즐거워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가 외부감동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을 공유, 신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각오다.

이를 위해 구청 로비에 전 직원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청원 소리함을 설치·운영,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시민에게 보다 친절하게 다가가는 감동행정에 힘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촘촘한 복지행정에 초점을 맞춰 전주형 동네복지 활성화를 위해 주민 주도로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위기상황에 빠진 취약계층에 대한 발 빠른 지원으로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구상이다.

박선이 구청장은 부서별 업무보고에서 "밖으로는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는 감동행정'에 힘을 기울여 시민 불편 제로화를 지향하고, 안으로는 430여 청원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직원들의 고충을 새겨들어 시민도 직원도 모두 행복한 덕진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익산 개사료공장 대형 화재 진화

1일 새벽 익산의 한 강아지 사료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약 2시간 만에 진화됐다.

익산시 남산면에 소재지를 둔 이 공

장은 오전 1시 40분경 공장내부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며 화재가 시작됐다.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들어져 있던 사료들과 공장기기가 소실돼 1억

7,000만원 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사료 포장지가 쌓인 곳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 조사에 나섰다.

/김민근 기자

## 바에서 종업원 폭행한 20대 벌금 200만원 선고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운현 판사는 1일 바에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씨(24,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8월 중순 전주 시내의 한 카페

바 부근에서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29,남)의 얼굴을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다리를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민근 기자

두 사람은 닥트 게임을 하던 중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현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재판을 출석하지 않고 피해복구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부안으로 마실오세요

주소: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7, 202호

**만복건설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 扶來滿福